

2015 7. 05 연중 제 14 주일

제 1 독서 : 에제키엘 2,2-5 <반항의 집안도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것이다 . >

제 2 독서 : 고린토 2 12,7 ~10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복 음 : 마 르 코 6,1-6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은 연중 제 14 주일 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자주 읽었지만, 항상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갖곤 하였습니다. 어제 강론 준비를 하면서 저의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장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지 라는 것이지요, 무식이라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오직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상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자는,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면 적어도 어느 집안에서 구원자, 예언자도 아닌 구원자가,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피를 받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 되셨지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다르게 행동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팍한 지식, 어렸을때에 속된 말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한 친구가, 별안간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을 잘 살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는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를 담고 있고, 그들의 심금을 울렸으면 놀랐다고 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들어온 신자들을 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선입견을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한 이삼주 지나게 되면 파악이 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또 그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새로 들어온 신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을 못합니까? 만만하면 우습게 대하고, 만만하지 않으면, 왜? 저렇게 목이 뻗뻗해! 이런식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 새로 이공동체에 오시게 되면 아주 밀착하여 접근을 합니다. 자기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게 되는 우리의 잘못을 저는 솔찍히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 1 독서에, 예제키엘 예언자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바로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싫던 종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감쌀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보호해 줄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그런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선입견과 자기 생각들을 내려 놓으십시오. 저도 신부로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으면, 조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사실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또 고생을 안해 본 사람은 세상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에게서 마냥 받고만 자란 사람들은 아픈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저 사람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돈에 대하여 궁색하지는 않았을 것을! 사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자기 밖에 몰라요. 물론 이것도 저의 선입견인지도 모르지만요. 우리 성당에 한인 공동체가 생긴지도 삼사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신부님을 모시기 전에는 한국인 신부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니니까 이제는 후회를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 1 독서에서 예언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때,
영이 내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바로 이 영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의 삶은, 이 영을 모시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느낌, 내 기분에 집착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기분과 느낌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곧 양갈음을 하고 말지요. 그게 요즘 세상의 사는 모습입니다. 왜냐? 바로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것을 자주 느낍니다. 특히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을때에.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형제 여러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오로사도께서는 그 가시를 빼 달라고 세번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답을 얻으신것은

**“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도 매일 수백번을 간청을 드리는 데도 그 가시를 안빼 주십니다. 수도자 때부터 저는 기도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것 좀 빼 주세요, 이것 좀 빼 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바오로 성인 같은 그런 신앙이 없는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 자신을, 제 자존심의 포기를 못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바오로 성인은 딱 세번 만에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신 것 입니다. “아! 바로 겸손하게 하느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로구나!” 하시면서 순명을 하신 것 입니다. 사실 저도 이 가시만 없었으면 강론이 훨씬더 강한 어조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각자 나름대로 가시를 갖고 계십니다. 그 가시는 바로 죄 입니다. 그 가시에 찔리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들이 잘못 하고 있어!” 하면서 남의 가시만 뽑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미사때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 입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할때에는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없이 그리하고 나면 남는게 무엇입니까? 저도 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허 합니다. 할때는 정신이 나간처럼 해 됐는데, 막상 제 정신으로 돌아오면 “아! 내가 이다지도 가벼운 사람이었는가?” 하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습성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을 받아서 내 몸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치유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행복은 내가 좋은 것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실천 할 때에 바로 마음 깊숙히 느끼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것 먹고, 하고 싶은것 하는 것이 행복인 것인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느낌과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느낌과 기분이 좋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인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 입니다. 왜 그것이 착각이냐 하면, 그러한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러나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문을 당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의 전기를 읽어 보시면 아실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옆구리에 피가 철철넘쳐 흘러도 그들은 그안에서 행복을 느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못 느끼시지요? 저도 다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 우리 성인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마더 데레사도 마찬가지이고 비오 신부님도 그러셨습니다. 오상을 받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행복하셨던 것은 무엇이나?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를 알고 받아들이셨기 때문 이지요. 형제 자매님들, 허상의 무지개를 쫓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과 또한 힘을 얻으시고자 하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에게도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기 때문에 견디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 이라는 것 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명예란 가진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은 어느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만이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아버지, 저희 눈에서 어둠을 걷어내시고 성령의 빛을 주시어,
낮은데로 오신 아드님에게서
저희가 아버지의 영광을 알아보고, 인간의 나약함에서
부활의 힘을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반항의 집안도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 >
에제키엘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2-5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때,
영이 내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 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 왔다.
얼굴이 뻘뻘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
너는 그들에게 ‘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않든 ,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23(122)1,2 ㄱ,2 ㄴ ㄷ ㄹ,3-4 (◎ 2 ㄷ ㄹ)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 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을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제 2 독서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 서 말씀입니다. 12,7 L-10

형제 여러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찢러 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세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4, 18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위에 내리셨다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6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 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몇몇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구쳐 주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 다니며
가르치셨다.